

‘노키즈존’은 차별과 배제의 또 다른 이름 : ‘서울키즈 오케이존’이 아동친화적 사회를 위한 마중물 되길

박희원 서울시 저출생정책추진반 과장

어린이 입장을 금지하는 ‘노키즈존’은 ‘영업의 자유’와 ‘아동의 권리’ 사이에서 첨예한 논쟁의 대상이다. 특히 합계출산율 0.78명(‘22년)의 초저출생 국면에서 ‘노키즈존’으로 대표되는 아동에 대한 차별과 배제가 저출생 위기 극복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추진하는 ‘서울키즈 오케이존’이 아동친화적인 사회로 가기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1. 들어가며

‘노키즈존 나빠요! 차별금지법 좋아요!’

어린이날 100주년이었던 지난 2022년 5월, 국회 앞에 어린이들이 모여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친구들과 가족들과 신나게 뛰어놀아야 할 어린이날에 아이들은 왜 여기까지 나오게 되었을까.

어린이 입장을 금지한다는 뜻의 노키즈존(No Kids Zone). 한 식당에서 뜨거운 물을 들고 가던 종업원과 아이가 부딪치면서 아이가 화상을 입은 사고에 대해 법원이 영업주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한 판결이 나온 2014년경부터 확산되기 시작한 ‘노키즈존’은 지금까지도 ‘영업의 자유’와 ‘아동의 권리’ 사이에서 사회적 논쟁이 첨예한 이슈다.

특히, 합계출산율이 1명이 채 되지 않는(2022년 국내 합계출산율 0.78명) 최악의 저출생 위기가

계속되면서 ‘노키즈존’에 대한 관심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아이를 낳지 않아 국가가 사라질 것을 걱정하면서, 다른 한쪽에선 태어난 아이들조차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국회와 정부, 지자체, 외선 등에서도 ‘노키즈존’을 집중 조명하기 시작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7년 노키즈존이 아동차별이라고 결정했고, 한 국회의원은 아이를 안고 국회에 나와 아이들을 차별하는 노키즈존을 없애자고 주장했으며, 정부는 노키즈존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누군가는 영업주에게 어린이 손님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영업의 자유가 차별해도 되는 권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노키즈존을 경험한 아이와 부모는 외출할 때마다 심리적으로 위축될 것이고, 아이들은 차별을 ‘해도되는 것’으로 인식할 수도 있다. 또 다른 노○○존이 생겨날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노키

즈존이 만연한, 아이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회에서 ‘저출생 극복’은 텅 빈 구호에 그칠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는 ‘탄생응원서울 프로젝트’(舊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서울키즈 오케이존’ 사업을 전국 시·도 최초로 시작했다. 노키즈존의 반대 개념으로, 아이 동반 손님을 환영하는 업장을 확대해 아동친화적인 환경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다. 본 사업과 관련해서 2장에서는 ‘서울키즈 오케이존’의 추진배경과 ‘노키즈존’에 대한 여전한 논쟁, 3장에서는 ‘서울키즈 오케이존’ 사업 현황, 4장에서는 향후 과제를 다뤄보고자 한다.

2. 서울키즈 오케이존과 노키즈존에 대한 여전한 논쟁

가. 노키즈존 확산계기

노키즈존은 2011년 부산의 한 식당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뜨거운 물을 들고 가던 종업원과 아이가 부딪치면서 화상을 입은 사고)를 계기로 확산되었다. 노키즈존은 음식점마다 다양한 지정 이유가 있을 것이며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운영한다.

〈표 1〉노키즈존 확산 계기 판례(2013년 부산지법)

2011년 한 식당에서 뜨거운 물을 들고 가던 종업원과 10세 어린이가 부딪쳐 화상을 입은 사고에서 식당 주인과 종업원이 4,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업소 과실80%, 아이부모 과실 20%)

나. 노키즈존에 대한 논쟁

올해 초 한국리서치 여론조사 결과(‘23년 2월, 성인 1,000명 대상)

(찬성) 아이들의 부주의한 행동과 안전사고를 이유로 노키즈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3%였으며, 주요 이유로는 아이들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인한 사고예방 및 업주의 업장 운영에 대한 결정 권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반대) 하지만 노키즈존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아이와의 외출이 제약되며, 아이들이 위축되고 엄마 아빠들이 양육하는데 불편함이 커진다면 문제이다. 국내에서는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노키즈존’운영에 대해 아동차별이라고 결정한 바 있으며, 미국, 영국 등 세계적으로도 논란이 되고 있다.

① 노키즈존 허용 가능한가? : 허용할 수 있다73%

※ 주요사유 : 음식점 등을 이용하는 다른 손님들에 대한 배려와 어린이 안전사고 방지

■ 만 18세 이상 남녀1,000명

모름 9%

허용할 수 없다18%

허용할 수 있다73%

② 노키즈존, 어린이의 기본권 침해한다? : 침해한다 44.1% (「2022 서울서베이」 결과)

■ 서울거주 2만 가구 대상

아니다 19.4%

보통이다 36.5%

침해한다 44.1%

[그림 1] 노키즈존 관련 허용여부[한국리서치 2021, 2023]

다. 정부 및 국회 동향

‘영업의 자유’와 ‘아동의 권리’라는 가치가 상충하는 상황에서 최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은 ‘노키즈존 폐지’ ‘퍼스트 키즈 대한민국’을 제안하며 지난 7월 아동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노키즈존 실태조사를 통해 대안을 모색 중에 있다. 또한 국회에서는 아동을 차별하는 요인을 없애고 아동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관련 법률(아동기본법, 아동복지법) 제·개정 진행중에 있다.

3. 팽팽한 논란속에서, 서울시는 배려하고 관용하여 아동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서울키즈(Kids) 오케이존’사업 추진

“모두의 어른이 사라진 시대, 서로를 위한 배려 필요” 영업주와 이용시민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을 시작으로, 사회인식이 개선되고 아이 동반 가족이 마음 편히 외출할 수 있는 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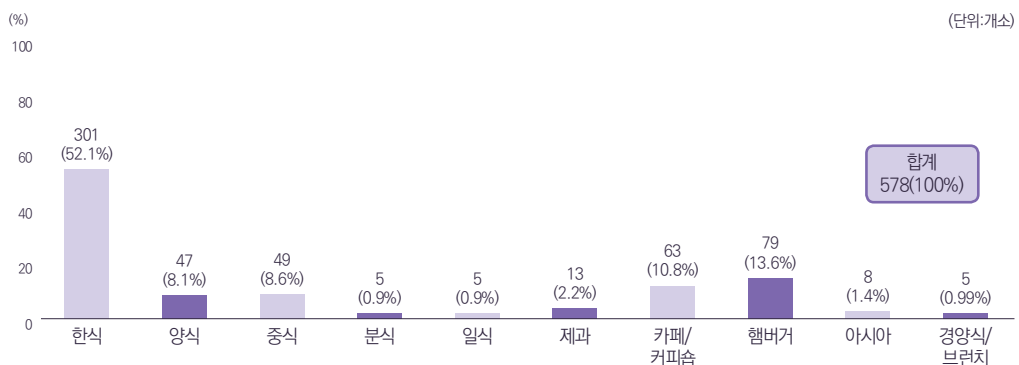
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22년 12월 ‘서울키즈 오케이존’을 시작, 지금까지 578개소를 지정한 바 있다.

‘서울키즈 오케이존’은 모든 아이가 환영받고, 아이와 함께 방문하는 엄마아빠(양육자)가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업장이다. 본 사업의 참여의지가 있는 일반음식점 및 카페 영업주의 자율적 동참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 참여하는 업체에는 아이용 식기류 및 의자, 미술 그리기 도구 등 아이 이용 도움 용품 구비를 위해 30만원(1회)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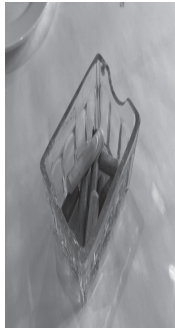
서울시는 음식점 및 식음료 매장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민간외식업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영업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끄는 데 성공하게 되었고, 사업 개시 7개월만에 연간 목표 500개소를 초과 달성하게 되었다.

이외에도 아이용 그리기 미술 도구 등을 제공하거나,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야외정원이나 놀이방을 별도로 갖추는 등 자치구별로 특색있는 ‘서울키즈 오케이존’도 있어 서울시민의 눈길을 끌고 있다.

지역 맘카페, 블로그 등에 엄마아빠들의 긍정적인 의견은 쏟아졌다. “미리 지도를 확인하고



[그림 2] 서울키즈 오케이존 업종별 현황



크레파스 등 그리기 도구가 있는 레스토랑



놀이공간이 있는 브런치 식당



자연과 함께하는 캠핑카페

[그림 3] 특색있는 서울키즈 오케이존

가서 눈치보지 않고 마음 편하게 식사할 수 있어 좋았다”, “엄마아빠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된 것 같다.”는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키즈 오케이존에는 영업권의 제한도 없고, 아이나 양육자에 대한 불편이나 차별도 없으니 서로가 반대할 이유가 없는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지역 맘카페, 블로그 등 의견

아기 데리고 외출할 때마다 먹는게 걱정이었는데, 좋은 정보 감사해요/ 애 키우는 죄인 된 기분 너무 싫은데, 이런 곳이 많아지면서 사회 인식이 바뀌었으면/ 서울맵으로 사전에 위치를 확인하고 가서 편리해요

그렇다면 영업주들이 ‘서울키즈 오케이존’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실제 참여한 영업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출생 시대 아이에 대한 존중과 배려 필요, 매출 증대, 업소 홍보 차원 등 다양했다.

노키즈존에 관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이렇게 영업주와 부모들에게 환영받고 있는 것을 보면, 아이와 양육자를 환영하는 서울키즈 오케이존이 그 현실적 대안이 되지 않을까? 노키즈존을 두고 찬반 양측의 입장이 아직 팽팽하고, 이에 대한 규제를 위해서는 시민의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한다.

4. 향후과제

영업주도 부모도 아이도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서울키즈 오케이존’이 되려면 아직 풀어야 할 숙제들이 남아있다. 무엇보다 많은 영업주들이 ‘노키즈존’의 원인으로 꼽는 아이와의 충돌, 미끄러짐 등 각종 사고 발생에 대한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올해 10월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2023.10.16.) 용혜인 의원이 ‘노키즈존’에 대응하는 사업으로 ‘서울키즈 오케이존’ 사업의 선도적 사례를 언급하며, 안전사고 위험예방 및 보험 가입 부담 줄이는 정책보험 제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안전보험 상품지원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마무리했으며, 모든 영업주들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민간 기업과 협력해 ‘서울시 안심보험(정책보험)’ 상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영업주들의 의지와 동참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서울시가 지자체 차원의 선도적인 시도로 ‘서울키즈 오케이존’을 시작했다면, 이제는 정부

차원의 검토와 제도적인 유인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서로에 대한 배려와 관용이 소중해진 시대, ‘서울키즈 오케이존’이 아동친화적인 도시로 가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